

2020년 4분기, 재정살포로 소득은 증가했으나 계층간 소득 분배는 오히려 악화

-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.8%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사상 최대의 돈을 뿌린 결과
 - 실제로 재정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(-0.5%)과 사업소득(-5.1%)은 감소

소득 5분위별 가구당 소득 증가율

단위: 전년동기비%

	전체	1분위	2분위	3분위	4분위	5분위
- 근로소득	-0.5	-13.2	-5.6	0.0	0.0	1.8
- 사업소득	-5.1	6.2	3.0	-5.7	-5.1	-8.9
전체소득	1.8	1.7	0.1	1.2	2.0	2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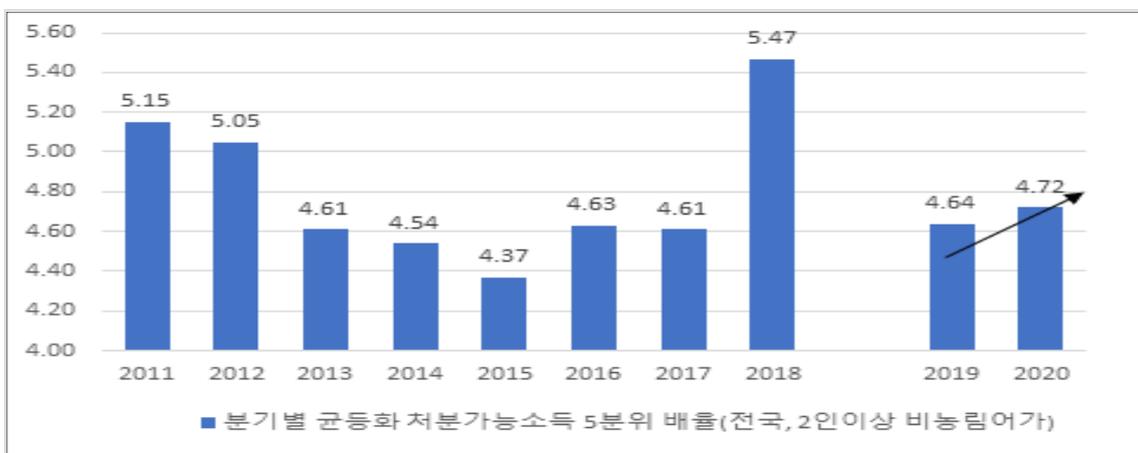
- 분배의 척도인 5분위 배율은 4.72배로 전년보다 0.08배포인트 증가
 - 5분위 계층(최상위 20%)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(최하위 20%)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수치가 커진 것은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

문재인 정부 4년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여실히 보여줌

- 최저임금 과속 인상,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, 반기업 입법, 땀질 식 세금 퍼붓기 등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는 문 정부 정책들은 오히려 저소득·서민들을 1차적 희생자로 만든 셈

저소득층 배려한다는 문 정부에서 계층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

단위: 배(각 년도 4/4분기 기준)



자료: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

주: 2019년 통합개편후 5분위 배율은 기존 조사와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존 조사에서 작성된 5분위배율과 비교 불가능